

## 한성로타리클럽, 창립43주년 기념주회 개최 회원 및 내빈 80여명 참석



한성로타리클럽(회장 손미선) 창립 43주년 기념주회가 지난 5월 10일(목)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회원 48명을 비롯해 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과 장세호 차기총재님, 최진욱 사무총장님,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님 등 지구임원들과, 5지역의 서울옥수RC 류인득 회장님과 목남희 전회장님, 서울신용산RC 정지웅 회장님, 동서울RC 김용범 회장님, 서울아리랑RC 민지희 회장님, 류청 차기회장님, 김태연 차기총무님을 비롯 내빈 34명이 오셔서 한성로타리의 창립 43주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이순동 총재님과 장세호 차기 총재님의 축사가 있었고, 그동안 한성로타리클럽을 위해 애써오신 장충식 전총재님과 팽재유 전총재님, 이문용 전회장님, 김정전 전 회장님께 공로상을 드렸고, 강부근 전 회장님, 소재선 전 회장님, 박종훈 로타랙트위원장님께 감사장을, 이용원, 유창열, 변재희

회원님께 봉사상을 증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성로타리클럽이 후원하고 있는 마포고 인터랙트 진형필 선생님이 인터랙트 학생 2명과 참석하셔서 그동안 인터랙트 활동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기에애한 분위기속 장충식 전 총재님의 건배제의가 있었고, 김홍진 전 회장님과 박상조 전 회장님의 생신축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만찬을 하는 동안 지난 1년간 한성로타리 봉사 및 주요 활동을 PPT 영상으로 상영하였습니다.

2부 축하공연으로 권 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최윤아 피아니스트 연주와 테너 이장원, 김성진, 소프라노 정주희 회원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출연으로 장충식 전 총재님의 독창 순서가 있었고, 브라스 앙상블의 공연과 이문용 전 회장님의 독창 공연이 있었습니다.



## 한성RC & 한성위너스 위성클럽,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

지난 4월 12일(목)에 손미선 회장을 비롯 11명의 회원과 한성위너스로타리위성클럽 한성구 의장, 엄윤정 총무와 함께 서울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한성로타리클럽은 배식 파트를 맡아서 2000명의 어르신께 음식을 배식하였고, 남성 회원님들은 뒷잔반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봉사 후 <여자만> 한정식집에서 주회 및 식사를 했습니다.



## 서울SRS로타리클럽 합창단, 보라매병원 ‘행복한 음악회’ 봉사 공연

서울SRS 로타리클럽 합창단 (회장 박명서) 은 지난 5월 24일(목) 보라매병원 초청,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행복한 음악회’ 를 보라매병원 행복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었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는 아트리움 로비는 SRS의 감미로운 소리에 빨려들듯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또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환자들과 가족들 바로 앞에서 노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걱정스러움은 금세 날아가 버리

고, 어느새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온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된다. 집으로 향한 우리들은 한번 더 청명한 날씨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 가득안고 집으로 향했다.

서울SRS RC 차기회장 김학자



## 서울관훈로타리클럽, 씨튼해바라기의집 방문 후원금 500만원 전달

서울관훈로타리클럽은 지난 4월 26일(목) 늦은 오후 윤영석 회장님, 이창민 총무님, 정휘영 차기회장님께서 클럽에서 후원하고 있는 씨튼해바라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씨튼해바라기의 집은 사랑의씨튼수녀회에서 1999년 3월 개원했으며, 성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 13세~19세 성매매 노출 위기 및 성매매 피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보호하며, 진학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현재 10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관훈로타리클럽에서는 2000년부터 연 200만원씩 지원을 해오다 2014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후원금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맡아주셨던 방진영 원장수녀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금년 2월부터는 최연화 원장수녀님께서 시설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방문 시 마침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과 심리치료를 해주는 선생님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심리가 불안한 청소년들을 24시간 돌보며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애견 등 관심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극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시설을 살펴보고 교육 과정들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골프주회로 총재공식방문 실시

서울남대문 로타리클럽은 지난 5월 2일(수) 웰링턴 CC 에서 총재공식방문주회를 가졌습니다.

늦게 갖는 총재공식방문 주회이기에 늘 격무에 시달리시는 이순동 총재님을 새로운 곳에 모시고자 골프주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이라는 먼 곳을 마다않고 방문해주신 이순동 총재님 감사드립니다. 이날 게스트로는 송창섭 8지역대표님과 서창우 3지역 대표님과 신흥래 총재월신 편집위원장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총재님께 그린피를 선물 해드렸고 총재님은 김 선물 세트를 주셨으며 또한 게스트분들의 그린피를 스폰해주셨습니다.

이승우, 전순표 두분의 전임총재님이 소속된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순동 총재님과 함께 '탁트인 고급필드'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총재 공식방문주회 뿐 아니라 창립 34주년 현장 전수회도 가졌는데, 내년 35주년 특별한 현장 전수회를 준비하는 회의시간도 가졌습니다.

야외이지만 엄숙하게 가진 총재 공식 방문주회에서 당부하신 이순동 총재님의 말씀 따라 더 많은 기부와 회원증강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주신 이순동 총재님과 지구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남대문RC 회장 남연승



##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자매클럽인 오사카 동 로타리클럽 방한 기념 주회 개최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건)은 지난 5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2박3일간 자매클럽인 2660지구 오사카 동 로타리클럽을 초청하여 행사를 가졌다.

2005년부터 교류를 갖기 시작한 서울무악로타리클럽과 오사카 동 로타리클럽은 2008년 정식 자매클럽 협약식을 갖고 매년 상호방문을 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자매클럽 협약식 10주년을 맞은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28일(월) 도착한 오사카 동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첫날 환영만찬으로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한국인들의 퇴근 후 회식문화 체험으로 북창갈비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날 오전에는 친선골프팀과 관광팀으로 나뉘어 친목 및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한강 요트클럽 더리버에서 개최된 주회에 참석한 후 요트를 타고 한강 야경을 감상하였다.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클럽은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서울삼청로타리클럽, 제3차 독거어르신돕기 쌀 나눔 봉사 이재후 전회장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직장주회도 개최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은 2018년 5월 30일(수) 삼청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삼청동 근처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 50세대에 쌀 50포(1포-20kg)를 전달하는 쌀 나눔 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인사도 드리고, 작은 정성이나마 쌀을 전달해 드리며 진정한 봉사의 즐거움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3일(수, 18:30)에는 이재후 전회장의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찾아 직장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인훈 회장을 비롯하여 18명의 회원과 서울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방문하여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모범 직장인으로 김경윤 차장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주회 후 정릉에 위치한 이재후 전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만찬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간의 친목과 우정을 더욱 더 깊이 나누는 뜻깊은 주회였습니다.





## 동서울로타리클럽, 자매클럽인 일본 이치가와 히가시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가

동서울로타리클럽(회장 김용범)은 지난 5월 26일(토) 일본 자매지구인 이치가와 히가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김용범 회장을 비롯한 회원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치가와 히가시 클럽과는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로타리 서울국제 대회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클럽회원들과 별장과 관광지 여행을 함께하며 좋은 추억을 남긴 바 있다. 그 때의 기억으로 이번 일본 이치가와히가시 창립 50주년 행사에 초청을 받아 방문한 회원은 일본 로타리안들의 극진한 대접과 환대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더욱 돈독한 유대관계 유지를 약속하며 준비해 간 선물을 전달하였다. 동서울로타리클럽 일본 방문단 일행은 일본 문화와 로타리안의 품격을 다신 한 번 더 알 수 있었다고 느끼며 일본 방문을 마무리했다.

## 새강북로타리클럽, 혜화여고 인터랙트 장학금 수여

새강북로타리클럽(회장 이진호)이 후원하는 신세대 혜화여고 인터랙트 클럽 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생일성금으로 시작한 혜화여고 인터랙트 클럽 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는 1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18년도에는 지난 2월에 혜화여고 어려운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가 있었고 5월 24일 목요일에는 혜화여고 인터랙트클럽 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진호 회장과 안병석 총무가 혜화여고 교장실을 방문하여 김서구 교장선생님과 박수현 지도교사와 만나 국제로타리 재단 봉사프로젝트와 클럽 봉사프로젝트, 혜화여고 현상황 등에 관하여 답소를 나누시고 인터랙트클럽을 위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장학생 인터랙트클럽 회장 김예진(2학년), 부회장 권시은(2학년), 총무 정유정 학생(2학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 한성로타리클럽, 자매클럽인 일본 도쿄 가와사키다이시(川崎大師) 로타리클럽 창립 45주년 기념식 참관



류 창 열  
한성RC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한성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지난 2월 23일(금)~2월 25일(일) 3일 동안 中齋 장충식 전 총재님, 손미선 회장 등 회원 20명이 일본 도쿄 가와사키다이시(川崎大師RC) 45주년 창립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한성RC는 앞으로 2년 후가 창립 45주년입니다만, 18년 전에 川崎大師 RC와 자매클럽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매클럽이기도 한 대만의 쉬멘RC 19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외빈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도착한 날 환영만찬에서 한성RC 전은진 회원님의 전자 첼로 연주와 더불어, 다음날 기념식전에서 특별 출연한 佳庭 총무님의 한국전통무용(입춤) 및 研堂 회장님의 성악공연은, 팬 촬영이 줄을 이을 정도로 기념식전을 빛내주어, 한성RC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이와이 회장님의 별도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로타리 사업활동 내역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념식전에서 소개한 것은 인상적이었는데, 전자피아노를 제공한 유치원 원생들과의 철쭉 식목 봉사활동 및 가와사키 시의 환경보호활동에 동참, 하천부지 800m에 심은 나무 식수 내용 등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川崎大師 平間寺(헤이젠지) 사찰의 주지스님이 참석하였는데, 眞言宗 3대 사찰중 하나인 川崎大師는 890년 전에 창설되었으며, 본 사찰의 신도회관에서 川崎大師 RC는 매주 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에서부터 출발까지 모든 이동과 관광을 이와이 회장과 회원들이 직접 안내해줄 정도로 한성RC 방문단을 각별히 배려해 주었고, 요코하마 지역의 컵누들 뮤지엄 및 선상 런치 등을 안내받아 관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서울문화로타리클럽, 자매클럽인 일본 무사시후쓰RC 30주년 행사 참석

글. 10지역 대표 김 중  
(서울문화 RC)



6월 9일 토요일은 우리 서울문화로타리클럽의 자매클럽인 일본 2750지구 무사시후쓰 로타리클럽의 30주년 행사가 있던 날이었다. 지난 우리지구의 지구대회에도 무사시후쓰 클럽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이때 무사시후쓰 클럽의 30주년 행사에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과 약속으로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함께 행사에 서울문화 클럽의 박찬희 차기회장과 이희봉 전회장을 비롯하여 총 8명의 회원이 동행하였다.

무사시후쓰 클럽은 일본2750지구의 현 총재이신 마사모리 사와타리님의 소속클럽이며 회원수는 49명, 일본 동경의 후추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럽이다.

행사는 오후 3시30분부터 후쓰시의 문화예술극장에서 시작되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우리와 좀 다르게 행사는 극장에서 시작되었다.

극장의 행사는 단순한 행사였다. 참석인원은 약 250명, 우리를 비롯하여 축하를 위하여 방문한 동경의 여러 로타리클럽들, 로타리 외 여러 기관의 참석자들이었다. 흡사 로타리 연수 협의회에서 참석한 로타리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와타리 총재를 비롯하여 후쓰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축하에 이어 마코토 미즈다 클럽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30년 회원에 대한 감사와 기부금 소개가 이어졌다.

서울문화클럽도 축하금과 함께 축하선물로 족자를 기증했으며 이희봉 전회장이 준비한 비공식 선물들이 전달되었고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기념식이 끝나고 장소를 옮겨 축하연회가 이어졌다. 약 1시간을 넘게 이어진 연회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계속되는 축하공연은 참가한 모든 회원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사였다. 특히 공연은 후쓰시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공연으로 이어져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이었다. 연회후 무사시후쓰클럽의 회원들과 서울문화클럽의 참가회원들의 뒤풀이가 이어졌고 진실로 모두에게 유익하며 선의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귀국하는 날은 후쓰시에 무사시후쓰 클럽에서 기증한 에코스트리트를 방문하였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일부를 폐자재들로 만든 보도블럭으로 만든 길이었다.

폐자재를 훌륭한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멋지게 만들어진 로타리의 기념조형물은 로타리를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그 조형물에는 기부한 회원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어 회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로타리의 전통과 격식은 물론 우정과 친근함이 충분히 어우러진 행사였다. 멋진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함께 참석한 우리 회원들도 무엇인가 로타리에 대하여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무사시후쓰 로타리클럽의 창립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